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5)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단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 복음이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해주실 것을 미리 약속해주셨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여기서 언급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보통 후손하면 남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간다.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장차 구원자로 오실 분이 인간의 혈통과 죄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처음으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원시 복음,” “원 복음”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해내실 것을 계속적으로 점차 구체화시키면서 약속해주셨다. 그 구체화된 예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 7장과 9장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기 7백년 전에(BC 720-730) 일어난 사건이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하여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낙심하였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유다 아하스 왕이 여전히 두려워하자 여호와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토록 의심이 가고 두려우면 네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나를 신뢰할만한 징조를 구하면 내가 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거절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했으니 믿음이 좋은 사람의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있었다. 이웃 앗수르라는 강대국과 동맹하여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에 대항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아하스의 불신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고, 저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는 징조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700년 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잉태케 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당장 쳐들어오는 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네 나라와 백성들을 존속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니 얼마나 확실한 징조이고 약속인가!

그리고 이사야 9:6-7에서는 구체적으로 처녀가 낳은 그 아들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신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 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고 집요하신지 보게 된다. 하나님의 집요하심,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심, 자기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것이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주체가 각기 다르다. 이사야 7:14에서는 처녀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였지만, 마태복음 1:23에서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의심의 최절정에 있었던 로마 압제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복음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음의 특권이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단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